

고마운 우리 학교

도찌기조선초중급학교 학부모 박수경

코로나비루스영향으로 일본학교들에서 휴교, 입학식이 중지되는 속에서 교원들과 일군들, 동포들이 감염방지에 최대한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4 명의 입학생들을 따뜻이 맞이해주셨다.

학교에서 감염방지를 위해 참가하시는분들께 마스크를 쓰고 참가한다는 알림들을 적절히 보내주셨으며 입학생 한집한집 감염방지대책에 의견이 없는가도 들어주셨다.

입학식당일날은 시간이 긴장되는 속에서도 새 신입생들이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매년과 같이 잡아주시니 보호자로서도 기뻐고 우리 아들도 결의문을 연습하는 과정에 우리 학교에 입학할 한다는 마음준비를 다그친것 같았다.

4 월달 등교를 하면서 토요일등교, 3 일간 수업동안에 선생님들께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너무 고맷다.

담임선생님께서 준비물도 하나하나 안내해주시고 입학식날부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지내는 사진들을 매일처럼 보내주셔서 정말 안심했고 기뻐다.

3, 4 일간 등교를 했는데 아들이 집에 와서 학교 교가도 부르고 자기를 《ぼく》가 아니라 《나》라고 하게 되고 새로 배운 우리 말을 집에서도 적극적으로 쓰자는 자세에 놀라고있다.

학교가 휴교되어 동무들과 만나 함께 수업을 받지 못하는것이 슬프다고 하고 있으나 온라인수업으로 이행하는 속에서 아침인사 등을 통하여 집에서도 함께 학습하고있다는것을 느껴주었으면 한다.

또한 화를 복으로, 민족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이 발휘되는 계기로, 또 가정교육에서도 일심단결하여 이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